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2019.10 [16~18]

(가)

㉠ 아득한 넷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승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피하든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든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 것도
썰론*이 십리길을 따라나와 울든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모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밤을
먹고 단쌈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 아득한 새 넷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넷 한울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 * 오로촌: 오로촌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 멧돌: 멧돼지.
- * 썰론: 썰론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 앞대: 평북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강원도
에서부터 제주도까지에 이르는 각지.

(나)

대숲 바람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요
서늘라운 모시옷 물맛 나는 한 사발의 냉수물에 어리는
우리들의 맑디맑은 사랑

봉당 밑에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곁여 흐르는 게 아니라요
대패랭이 끝에 까부는 ㉢ 오백 년 한 숲, 샓갓머리에 후득이
는
밤 쏘낙 빗물소리……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죽창을 쥘던, 간 큰 아이들, 황토 현을

넘어가던

정소리 쟁과리 소리들……
남도의 마을마다 질펀히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흰 연기 자욱한 모닥불 그늘음 내, 풍당 빛자루도 개 터럭도
보리 송년도 땡별도
얼개빛도 쇠그릇도 문둥이 장타령도
타는 내음……

아 창호지 문발 틈으로 스미는 남도의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눈 그쳐 뜨는 새벽별의 ㉣ 푸른 숲 소리, 청정한 청정한
맺넝파리의 ㉤ 맑은 숲 소리.

-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화자가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북방에 간 화자가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다. 화자는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수탈과 억압에 맞서고자 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가) : 2연의 '슬퍼하든 것', '붙드든 말', '울든 것' 등은,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면서 벌어들였을 이별의 정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상상한 것이겠군.
- ② (가) : 3연의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짠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는 것은, 축소된 영토인 '먼 앞대'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③ (가) : 6연의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북방으로 간 화자가 과거의 역사를 자신이 처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연결하여 느낀 상실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나) : 3연의 '죽창을 깎던, 간 큰 아이들', '징소리 꿩소리 소리 들은, 억압된 현실에 저항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이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나) : 4연의 '몽당 빗자루', '보리 송년', '문둥이 장타령' 등은, 남루한 삶 속에서도 민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겠군.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으로의 변주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에서 ㉢으로의 변주는 과거에 이어 현재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에서 ㉣로의 변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하여 화자가 새롭게 인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화자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보 기>—

(가)와 (나)는 화자가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북방에 간 화자가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다. 화자는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수탈과 억압에 맞서고자 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읽기 전 활동

(가)의 경우 북방에 간 화자가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온 민족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낸다는 점을 알고 지문 해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우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동학 운동의 정신, 그리고 민중의 보잘것없는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

아득한 넷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든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붙드든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나와 울든 것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 오로촌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멧돌: 멧돼지.
*솔론: 솔론족. 중국의 동북 지방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의 하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보기>에서 언급했듯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화자는 자신이 '부여 ~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 ~ 개구리'를 속이고 영토를 떠나왔다고 말합니다.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들과 소수민족들이 영토를 떠나는 '나'를 이별하며 '슬퍼하'고 '울'었던 과정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아모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키에서 하이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쌈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 앞대 : 평북 내지 평안도를 벗어난 남쪽 지방. 황해도·강원도
 에서부터 제주도까지에 이르는 각지.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광활한 영토를 이별하고 아무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남쪽 지방으로 내려옵니다. '따사한 햇'살을 맞으며
 '밥'을 먹고 '쌈'을 마시고 '낮잠'을 자는 등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가는 화자는 '개소리'에 놀라고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고 있음에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보
 기>에서 언급한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
 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현실과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소리'에 놀란
 다는 점은 불안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지나가는 사람마
 다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일제의 지배하에 놓인 우리 민족
 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
 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넷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넷 한울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
 자 뉘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
 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 백석, 「북방에서 - 정현웅에게」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긴긴 시간이 지나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에 화자는 '이
 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옛 하늘로, 땅으로 돌아옵니
 다. 그러나 이미 과거 우리 민족의 광활한 영토는 황폐해
 진 모습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나'의 '조상은 ~ 힘은' 없으며 세월의 흐름과 함께
 이런 긍정적인 것들이 모두 없어졌음을 드러내고 있습니
 다.

#작품 총평

화자의 상실감과 슬픔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화자가 <보기>에서 언급했듯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소박한 삶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성찰하고, 이러한 소박한 삶에서 잃어버린 수많은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음을 알고 넘어간다면 시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대숲 바람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고
 서드라운 모시옷 물맛 나는 한 사발의 냉수물에 어리는
 우리들의 맑디맑은 사랑

 봉당 밑에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대숲 바람소리만 고여 흐르는 게 아니라고
 대패랭이 끝에 까부는 오백 년 한숨, 샷갓머리에 후득이는
 밤 쏘낙 빗물소리……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대상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바람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맑디맑은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화자입니다. 그러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속에는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만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패랭이 끝에 까부는 오백 년 한숨, 그리고 샷갓머리에 후득이는 밤 소나기의 빗물소리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부정적인 심상들로써 힘들게 살아가는 삶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죽창을 짚던, 간 큰 아이들, 황토 현을 넘어가던
 정소리 꿩소리 소리들……
 남도의 마을마다 질펀히 깔리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흰 연기 자욱한 모닥불 그을음 내, 봉당 빗자루도 개 터럭도
 보리 송년도 땀벌도
 열개빛도 쇠그릇도 문둥이 장타령도
 타는 내음……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머리에 흰 수건 쓰고 죽창을 짚던, 간 큰 아이들은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한 민중으로, 황토현을 넘어가던 정소리 꿩소리 소리들은 동학 농민 운동을 상징하는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학 농민 운동 정신에 대해 이야기한 화자는 대숲 바람소리 속에 '모닥불 그을음 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모닥불 그을음 내'는 백성들의 남루한 살림살이와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타들어가는 냄새로, 백성들의 삶이 좋지 못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창호지 문발 틈으로 스미는 남도의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
 눈 그쳐 뜨는 새벽별의 푸른 숨소리, 청정한 청정한
 땀뺨파리의 맑은 숨소리.
 -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짧지만 앞의 부분과 비슷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시의 초반부에서 '오백 년 한숨'이 갖는 대조적 의미가 해당 부분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화자는 이렇게 남루한 민중들의 삶은 '한숨'이 나올 정도로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푸른 숨소리'로써 '청정한' '맑은 숨소리'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하며 <보기>에서 언급했듯 민중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작품 총평

전체적인 해석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듯 하지만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연에서 '오백 년 한숨'이라며 숨소리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을 기억했다면 마지막 4연에서 '푸른 숨소리'의 대조가 드러남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① (가)와 달리 (나)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정서가 심화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나)에서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쉽게 오답임을 확인 가능했던 선지입니다. (나)에서는 공간이 '대숲'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오히려 (가)에서 '앞대'에서 '나의 태반'으로 돌아오며 정서가 심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나)와 달리 (가)는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 (나)에서 공감각적 심상인 ‘푸른 숨소리’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쉽게 넘길 수 있는 오답 선지입니다. (가)에서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오답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③ (가)와 (나) 모두 각 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가)는 ‘떠났다’와 같이 동사로 각 연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만 ‘사랑’, ‘내음’, ‘숨소리’와 같이 명사로 각 연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 (가)와 (나) 모두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가)의 경우 1연에서 ‘나는 떠났다’의 반복을, 2연에서 ‘잊지 않았다’의 반복을, 6연에서 ‘없다’의 반복을 통해 과거 광활한 영토를 잃고 소박한 삶에 안주하는 상실감에 대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경우 ‘대숲 바람소리만 흐르는 게 아니라요’, ‘대숲 바람소리 속에는’을 반복하여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통해 떠올리는 민중의 삶에 대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⑤ (가)와 (나) 모두 자연물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다.

→ (가), (나) 모두 자연물과의 비교가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인간의 유한성과 자연물의 영원성과는 관련이 전혀 없는 시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⑤

<보 기>

(가)와 (나)는 화자가 특정한 공간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삶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북방에 간 화자가 명멸하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다. 화자는 축소된 영토 안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일제 강점기 현실과 연결하여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남도의 대나무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역사 속 민중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수탈과 억압에 맞서고자 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과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① (가) : 2연의 ‘슬퍼하던 것’, ‘불드든 말’, ‘울든 것’ 등은, 옛날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면서 벌어졌을 이별의 정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상상한 것이겠군.

→ 2연에서 ‘슬퍼하던 것’, ‘불드든 말’, ‘울든 것’ 등은, ‘아득한 옛날’에 ‘나’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이 광활한 영토를 떠나면서 벌어졌을 이별의 정황과 관련하여 화자가 상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가) : 3연의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쌈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는 것은, 축소된 영토인 ‘먼 앞대’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며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겠군.

→ 3연의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쌈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는 것은 소박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활한 영토를 떠나와 축소된 영토인 ‘먼 앞대’에서 소박한 안위를 찾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 (가) : 6연의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북방으로 간 화자가 과거의 역사를 자신이 처한 일제 강점기의 현실과 연결하여 느낀 상실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6연의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는 것은, ‘옛 하늘로 땅으로’ 돌아간 화자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과는 정반대인 과거의 ‘사랑, 힘’이 있는 역사가 모두 지나가 버렸다는 점에서 느끼는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④ (나) : 3연의 ‘죽창을 깬단, 간 큰 아이들’, ‘징소리 꿩파리 소리들’은, 억압된 현실에 저항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이 대나무 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 3연의 ‘죽창을 깬단, 간 큰 아이들’은 동학 농민 운동에 참여한 민중들을, ‘징소리 꿩파리 소리들’은 동학 농민 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억압된 현실에 저항했던 동학 운동의 정신이 ‘대숲 바람소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⑤ (나) : 4연의 ‘몽당 빗자루’, ‘보리 송년’, ‘문둥이 장타령’ 등은, 남루한 삶 속에서도 민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이겠군.

→ 4연의 ‘몽당 빗자루’, ‘보리 송년’, ‘문둥이 장타령’ 등은, 민중들의 남루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민중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민중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푸른 숨소리’, ‘맑은 숨소리’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 아득한 옛날
- ㉡ 아득한 새 옛날
- ㉢ 오백 년 한숨
- ㉣ 푸른 숲소리
- ㉤ 맑은 숲소리

① ㉠에서 ㉡으로의 변주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에서는 광활한 영토를 떠나오던 아득한 옛날의 기억을, ㉡에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기는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둘 모두 괴로운 현실이므로 ㉠에서 ㉡으로의 변주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부분이 맞습니다.

② ㉠에서 ㉢으로의 변주는 과거에 이어 현재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에서 ㉢으로의 변주는 과거에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현재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의 태반’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끄러움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선지는 오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에서 ㉤로의 변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에서 ㉤로의 변주를 통해 ‘오백 년 한숨’을 쉬는 민중의 부정적인 삶을 ‘푸른 숲소리’를 내는 긍정적 삶으로 보게 된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화자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④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하여 화자가 새롭게 인식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현실에서 ‘한숨’을 쉬며 남루한 삶을 사는 민중들이 ‘맑은 숲소리’와 같이 삶에 가치가 있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⑤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화자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에서 ㉦으로의 변주를 통해 화자가 민중의 남루한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 ㉦ 모두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드러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